#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비밀활동

## (살후2:1~17)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비밀활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임박한 재림을 넘어서 이미 재림이 된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뭐 일도 안 하려 하고 마치 인생을 접는다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삶을 맞이하려는 등 그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사도바울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시는 가운데 배교와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종말은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통일된 배교의 물결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리고 그러한 거센 배교 물결이 일어날 때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적그리스도의 공공연한 출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전 세계적인 배교,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 위에 세우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며, 그 배교자들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

들을 이끌어가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따로 뚝 떼서 7절에 읽은 대로, 그러나 지금은 어떤 기간이냐?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배교도 그렇고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도, 배교적 성향과 적그리스도적 활동은 이미 우리들 안에 역시 비밀스럽게 잠재돼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살아있을 때 임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런 전 세계적인 배교나 공공연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배교적 성향과 적그리스도의 비밀활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멀리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 때의 우리의 인격의 신앙상태, 마음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우리 몸이 죽은 다음에도 발전이 이루어져서, 죽을 당시에는 신앙의 불순물이 많이 포함돼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쯤에는 거룩해져서 만나는 게 아니고, 죽을 그 당시의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도 배교적 성향이 무엇인가를 알고 적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활동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아서 우리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추스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으로서 배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배교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 인류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한 것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근데 여기서 배교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태어날 때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은, 아예 하나님을 등진 채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진 채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배교의 기본조건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배교가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도록 부름을 받고 죄 용서함의 사건으로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배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배교적인 현상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사실은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배교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실까요?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확실히 여호와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확증을 위해서 이 배교행위가 교회의 역사 위에 이 세상에 허락되고 있는 겁니다.
배교자들의 물결이 거센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그래서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이 등을 돌린다는 얘기기 때문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배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죽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이 날마다 반복되는 경우, 이게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십자가 반대방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향하게 됩니다.
이 땅을 향한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교적인 성향을 띠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애인이 있는데 애인 친구를 보고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용납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배신이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는 이것이 배교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러면 이 세상일은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내 육체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룰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루어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마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배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야 하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배교적 성향을 띤다는 거예요.
이런 배교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종말의 때가 아니라도 지금도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 같은 기독교를 아주 본격적으로 핍박한 사람들을 말하는 줄로 알아요.
아니면, BC 160년 경 수리아 지역에 헬라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스의 신상을 세워놓고는 돼지 피를 성전 벽에 다 바르고 난리를 치잖습니까?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외적인 핍박을 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치명적인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예를 들면 그가 그렇게 했다고 유대교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유대교의 단합이 더 강화됩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더 기독교를 강하게 결속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짜 교회를 허무는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배교 성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에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전 세계적으로 역사할 적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그 적그리스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기독교를 박해하는 단순 박해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게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서 십자가와 반대방향으로 가는 자입니다, 배교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입니다.
딱 포인트로 집어서 그리스도를 적으로 삼을 수 있는 자는 십자가에서 출발해가지고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로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냥 무지한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시록 그 본문이 해당될 때 가서 우리가 더 자세히 하겠지만 대충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먼저, 66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궁금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보고 그 의미를 한 번 헤아려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666이 뭐겠어요? 뭐 굉장히 대단하고 신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해요, 6이라는 숫자가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에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일을 하면서 살되, 제 7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 삶에 대해 죽는 겁니다.
좀 완화시켜 말하면 쉬는 거고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업에 뺏기고 자식 키우는 일 등, 여러 가지 일에 뺏겼던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에게만 몰입하는 기간이 안식일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만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 안식일에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또 6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6일을 살 때쯤 되면 또 하나님과의 연합이 희미해지니까 모든 걸 중단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안식일을 갖습니다.

그런데 666이라는 것은 6이라는 숫자가 셋이에요.
다른 의미의 완전 숫자입니다.

절대 중단과 쉼이 없이 이 세상일을 계속 해나간다는 뜻이에요.
6, 이제는 이 세상일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몰입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6이 나와요, 안 쉬어요, 또 세상일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6이 나와요, 절대로 세상일을 마음에서 놓지 않는다는 의미에요, 666이라는 게.
왜 그럴까요? 왜?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오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성경에 해석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쉐마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목과 미간에 여호와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표를 붙여야 할 그 자리인데, 바로 그 자리에 666 표시를 줍니다.
사업하고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삶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붙어야 될 그 자리에 666이 들어갔다는 것은 절대로 세상일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느냐?
아니, 성수주일 하라고 그러는데?
성수주일 해서 주일에 가서 앉으면 무슨 설교합니까?
지금 교인들의 마음속에 사업이 잔뜩 들어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업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장사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업 잘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꾸 사업에 몰두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죽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6 다음에는 7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7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6이 계속되는 거예요.
6일 살았어요, 세상으로 꽉 차있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세상일이 잘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쉼이 없이 또 6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적 특성을 갖고 있는 자들의 리더십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은 특성이 뭡니까?
여호와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잘 때나 깰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가르치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업 잘되는 걸 비전으로 가지라는 것은 쉼 없이 그걸 바라보라는 얘깁니다.
666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COSTCO 라고 하는 창고형 매장,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지요.
이 창고형 매장에 가면 현금으로 계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용하다보면.
그런데 유일하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만큼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도 없고 난 비자카드 밖에 없는데 그럼 COSTCO를 이용할 수 없겠구나! 이런 의미에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방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걱정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세상에 대해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세상의 경제활동을 내가 제대로 해나갈 수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걱정을 내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매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못하게 될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듯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게 돼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한 경제적인 여건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은 뭐라고 우리를 속여 가르치는가 하면, '아니, 일주일 내내 뛰어도 먹고 살까 말까 한 판인데, 어떻게 세상에 대해 마음을 놓고 쉬고 사업에 대해 마음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서도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세상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매활동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에요.
그러니까 비전과 꿈을 갖고 이 세상일이 이루어질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일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 세상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잘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갈 건데, 못 믿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으면 일이 안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데살로니가교인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적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숭배를 받는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 위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종교의 예를 보면, 불상 앞에 가서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상도 돈 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좋아해서 불상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에요, 돈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니까.
진짜 신들 위에 있는 게 돈이에요.
진짜 신들 위에 있는 게 건강이에요.
이 세상의 오복들이 모든 종교의 신 위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니까.
근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신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내 말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버리니까,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면 돈이 생기고 내 말을 들으면 건강해지고, 내가 한 말대로 잘 지키면 이 세상에서 오복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다 밑으로 깔아버리니까, 그것이 더 위니까.
그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생겨가지고 이 세상의 일과 이 세상의 가치를 획득함에 있어서 쉼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마와 손에 표를 준다는 것은 생각을 끊임없게 하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세상일에 손대게 하는 겁니다.

666, 쉼이 없이 세상일에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에요.
그렇게 끌어들일 때 이용하는 심리전이 뭡니까?
내가 쉼 없이 세상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일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매매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불어넣어주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드리고 세상일에 대해 죽는 일을 방해하는 자, 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원수들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세상일에 죽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이고 요청이니까, 거꾸로 가는 거지요.
지금도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비밀리에 사람의 인격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배교적 성향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도 비밀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으로부터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거리를 두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마귀의 앞잡이들, 이들에게 넘어가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배교적 성향이 내게 없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두터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